

〈금방울전〉의 환상성 연구

김나혜*

- I. 머리말
- II. <금방울전>에 나타난 환상성
- III. <금방울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사회적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금방울전>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의 양상을 살펴 그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금방울전>은 옥황, 용왕, 용자, 용녀, 선관, 선녀, 귀신, 금방울, 구룡(암태지) 등 환상적 요소들로 응집되어 있고, 특히 여주인공이 이물(異物)인 금방울의 형상으로 서사의 전면에 등장해 환상성은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천상과 현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천상에서 지향하는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고 있었다. 즉, 천상에서는 미약한 해룡이 가부장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실에 개입하여 천명(天命)을 전달하였고, 금령은 비록 이물(異物)의 형상이나 초월적 능력을 부여해 가장을 위해 희생하며, 효(孝)와 열(烈)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정절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결국 <금방울전>에서 금방울을 통해 나타난 여성의 신이한 능력과 서사의 전면에 등장한 모든 환상성은 현실의 논리에서 배제되었고, 여성으로 변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신한 금령은 가부장제 하에서 다처제라는 현실의 논리에 포섭되어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인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영웅소설의 구조와 여성의 신분상승이라는 긍정적 논리에 함몰되어 포착되지 않았던 여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환상성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금방울전>, 환상성, 영웅, 여성, 가부장제, 효(孝), 열(烈)

1. 머리말

<금방울전>은 해룡과 금령의 일대기가 영웅소설의 구조로 전개되는 가운데 여주인공이 이물(異物)인 금방울의 형상으로 사건의 전반을 주도하며, 서사의 전면에 등장한 반면 상대적으로 남주인공의 영웅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작품이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금방울전>에 대한 논의는 영웅소설,¹⁾ 설화의 수용,²⁾ 성장소설,³⁾ 소재론⁴⁾ 등 각각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초

-
- 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7, 271~454면;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51~60면;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유허, 『금방울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군홍, 『<금방울전>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용기, 『여성영웅의 서사적 전통과 고소설에서의 수용과 변모』, 『우리문학연구』 제32집, 우리문화회, 2011, 33~74면; 김나영, 『家の식의 관점에서 본 <금방울전>』, 『돈암어문학』 제19집, 돈암어문학회, 2006, 53~82면.
 - 2) 김선아, 『금방울전 연구』, 『어문논집』 제4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155~180면; 박용식, 『<금방울전> 연구』, 『중원인문논총』 제17집, 건국대 중원인문연구소, 1998, 1~15면; 사카타 사요, 『<금방울전> 연구』, 『국문학연구』 제17집, 국어국문학회, 2008, 181~202면; 장경남, 『고소설의 이물교구담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23집, 우리문화회, 2008, 151~181면; 윤경수, 『<금방울전>에 나타난 용신관념과 신화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9집, 반교어문학회, 1998, 267~291면.
 - 3)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겨레어문학』 제8집, 겨레어문학회, 1987, 165~184면; 이규훈, 『조선 후기 여성 주도 고난 극복 고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제7집, 연민학회, 1999, 153~188면.
 - 4) 성기열, 『<금령전> 중의 '방울' 소고』,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76, 116~130면; 신호림, 『<금방울전>에 나타난 금방울의 성격과 여성성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고전여성문학회, 2012, 365~401면.

점은 금방울의 형상이 지니는 성격과 여성으로의 변신에 모아졌다.

선행연구에서 금방울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난생(卵生) 모티프로 보는 데서 나아가,⁵⁾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신성재로 보는 데로 모아졌고,⁶⁾ 금방울에서 여성으로 변신한 것에 대해 당대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보며,⁷⁾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원(始原)으로서 여성 집단의 힘이 은폐되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⁸⁾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각되었다. 물론 이와 상이한 입장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⁹⁾ 남성의 가치관에 편승하려는 여성 의식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고,¹⁰⁾ 금방울의 능력이 단절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잠재적 여성영웅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으나,¹¹⁾ 이 또한 금방울의 형상으로 발휘한 능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여성의 능력으로 수렴하여 인정하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금방울의 형상으로 보여준 활약을 여성의 능력으로 인정하며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입장은 금령의 신분상승에 주목하여 영웅소설의 구조에 크게 기대어 형성된 것으로, 금방울의 형상 외에도 <금방울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비현실적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이 작품에는 비현실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실에서도 재현되고, 이물(異物)인 금방울 외에도 옥황·용왕·선관·선녀·귀신·구룡(암뱀) 등 비현실적 존재들로 응집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실의 사건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환상은¹²⁾ 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방울전>의 선행연구에서 환상성은 금방울의 형상에만 집중되어 영웅소설의 구조 중 일부로 주목받기

5) 성기열, 위의 책, 116~130면.
 6) <금방울전>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금방울의 초월적 능력과 신성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특히 신호림은 금방울의 신성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성재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 가운데 임성래는 영웅소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다루고, 사카타 사요는 '요괴 퇴치'를 중심으로 다루어 금방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7) 김균홍, 앞의 논문, 54~60면; 이유경, 위의 논문, 74면; 이규훈, 위의 논문, 121면.
 8) 신호림, 앞의 논문, 395면.
 9) 김연호, 앞의 논문, 45면.
 10) 김미란, 앞의 논문, 183면.
 11) 김용기, 앞의 논문, 64면.
 12) 이 글에서 환상의 개념은 캐서린 흄의 “환상은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이탈이다. 이는 곧 문학 본래의 중동이며, 괴물에서 은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의를 따른다.(캐서린 흄·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1984, 57면)

나, 단위담의 하나로 다루어져 파편적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금방울의 형상 외에 천상계나 이물(異物)들이 서사에 개입하는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상성을 중점에 두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논의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금방울전>을 대상으로 환상성의 양상을 살펴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사에 개입하는 천상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특히 주인공들은 천상계의 개입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은 언제나 정(正)의 가치를 지향하기 마련이고 천상세계란 정(正)의 가치가 구현된 복합체”¹³⁾라는 입장에서 천상계를 이데올로기의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천상계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결국 당대 사회에서 추구했던 이념과의 관련성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금방울전>을 대상으로¹⁴⁾ 환상성의 양상을 살피고, 작품에 구현하려는 이데올로기를 탐색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측면에서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금방울전>을 영웅소설로 바라보는 편향된 연구시각의 폭을 넓히며, 이 작품의 주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협소하게 다루어졌던 환상성을 전면적으로 확장하여 논의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3)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46면.
 14) <금방울전>은 경관본 22종, 필사본 6종, 구활자본 10종을 합해 총 38종이 현전하며, 경관 28장본은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에 소개되어 적어도 1800년 무렵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되고 (유춘동, 「세책본 <금령전>의 텍스트 위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2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4, 107면), 경관본 28장본 가운데 대영박물관 소장본이 최선본(最先本)으로 밝혀졌다.(최운식, 「<금방울전> 연구」, 『국제대학교논문집』 제12집,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84, 3~25면) 이 글에서는 사회적 의미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대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수 있고, 최선본(最先本)으로 밝혀진 대영박물관 소장 경관 28장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이본(異本)은 김기동·W.E. Skillend·D. Bouchez, 『경인 고소설 판각본 전집』 4, 35~48면에 영인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나 한 면에 여러 장이 영인되어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용할 때는 작품의 장수와 앞·뒤를 밝히고자 한다.

II. <금방울전>에 나타난 환상성

1. 현실에서 전개되는 환상적 사건

1.1. 장공부부의 경우

〈금방울전〉에서 환상적 사건은 장공부부에게 먼저 일어난다. 원(元)의 신하 장공은 명(明)이 중흥하자 산 속으로 피신하여 살아가는데, 남전산 신령이 화(火)를 피해 떠나라는 일몽을 얻어 부인과 이곳을 떠난다. 그런데 이들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는 홍의동자가 나타나고, 부인의 몸속으로 그가 들어가는 환상적 사건을 경험한다.

부인이 잠간 입을 버리미 농지 몸을 흔드러 붉은 기운이 되어 드러날 부인이 삼키고 보니 울연 턱지 아득하며 광풍이 니러나고 고이힐 소리 진동하는지라¹⁵⁾

용자(龍子)는 붉은 기운으로 변하여 부인의 몸속에 들어가는데, 앞서 장공부부는 피난하라는 하늘의 뜻을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면, 이제 비현실적 사건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다. 이렇게 용자(龍子)가 장공 부인의 몸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요괴와의 싸움에서 연소(年少)하여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소즈는 동희 농왕의 제 삼지라. 남희왕이 되어 부뷔 친영하여 오다가 동희 호상의 남섬 진주 요괴를 만나 농녀를 아스 가려 흐미 들히 합너하여 쓰호다가 농녀는 힘이 진하여 죽고 소지 또한 나히 어린고로 신통을 부리지 못하여 다라날 시 밋쳐 슈부로 드지 못하고 인세의 먼니 나미 괴력이 진하여 다시 다라날 곳이 없는 지라. 바라건디 부인은 잠간 입을 버리시면 몸을 피하고 후세의 은혜를 갑호리이다.¹⁶⁾

용자(龍子)는 동해 용왕의 삼자(三子)로 현실에 나타나 장공부부에게 자신의 처지를 직접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이는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15) <금방울전 단>, 1장 뒤.

16) <금방울전 단>, 1장 앞~뒤.

넘나드는 것으로 환상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장공부부는 꿈에 청룡이 내려와 보은(報恩)의 의미로 자신의 아들이 이들에게 환생할 것이라 알려주는데, 이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천상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천상과 현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죽식의 급훈 거슬 구하시니 은혜난망이라. 갑흘 비를 아지 못허더니 오늘 옥데 조회를 브드시고 텃상 텃하의 원굴훈 거슬 삶피실 시 남히 농왕의 필너는 나 의미느니라. 저의 신훈하여 오다가 요귀의게 죽고 원훈이 옥데기 발원훈디 옥데 금광으로 하여곰 캐히 보은케 허라 허실시 농즈도 인세의 니여 보니여 미진훈 인연을 다하라 하시니 니 금광의게 청하여 그디집의 정허엿느니라.¹⁷⁾

용자(龍子)와 용녀(龍女)의 환생은 미진한 인연을 다하라는 옥황의 명(命)으로 이루어졌고, 용왕의 의도에 따라 용자(龍子)의 환생할 곳이 지정되었다. 따라서 용자(龍子)의 환생은 옥황의 명령과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수직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천상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용자(龍子)는 장공부부에게 환생하는데, 장공부부는 아이를 낳자마자 홍의동자의 얼굴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장공부부는 현실에서 용자를 구하는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꿈을 통해 천상의 의도를 전달받으며, 꿈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공부부는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룡이 천상에서 현실로 정착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되고, 환상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후사를 얻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형성된 장공부부의 가정은 곧 현실의 사회적인 문제로 깨어진다. 혼란한 정세로 인해 피난하던 중 장공부부는 해룡과 분리되고, 해룡은 부모와 유리된 채 살아간다. 이는 환상적 사건으로 형성된 가정이 현실의 사회적 문제로 와해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환상적 사건의 경험 즉,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공부부에게 나타난 환상적 사건은 가정의 형성과 회복의 매개로 작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해룡이 현실에 정착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7) <금방울전 단>, 1장 뒤~2장 앞.

1.2. 막씨의 경우

금령은 막씨에게 금방울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막씨의 남편 김삼냥은 방탕하여 조씨를 취해 돌아오지 않고, 막씨는 고공(雇工)으로 일하며 시모(媼母)를 봉양한 후 10년간 시묘살이를 한다. 막씨의 절개와 효를 옥황이 알고 금령을 환생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뜻을 꿈에 동자가 나타나 전해 준다.

그디의 디절과 지효를 옥데 알으시고 극진이 포장하라 하시미 즈식을 접지하려 하더니 드르미 그디의 장부 난중의 죽었다 하는지라. 홀일업서 옥데기 이 스연을 주흔즉 옥데 조홀 도리로 접지하라 하시더니 남히 농녀와 동히 농지 초년 원스하여 옥데기 옥데 탐하의 보수호를 발원호 즉 옥데 우리로 하여곰 선처하여 보우케 하라 하신고로 명을 밧드러 동히 농즈는 맛춤 조흔 곳이 이셔 구쳐하여 스되 농녀의 거처를 정치 못하여 이제 다려와 그디를 쥬느니 십육년 후의 얼굴를 볼 거시니 이제 보앗다가 후일 의심이 업게 하라.¹⁸⁾

앞서 해룡의 환생이 장공부부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컸다면, 금령의 환생은 막씨의 절개와 효에 대한 포상의 의미가 크다. 옥황이 막씨의 절개와 효를 칭송하고, 천상에서 금령을 막씨에게 환생시키려는 것은 이념적 지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절개와 효의 표상인 막씨에게 금령을 환생시킨 것은 금령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그 이념을 실현하도록 천상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령의 얼굴을 16년 후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예고하며 미리 확인하게 하는데, 이는 금령이 본래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꿈을 통해 동자가 알려준 사실은 현실에서 그대로 전개된다.

싱시와 다름이 업시 슈작하다가 도라간 후 즈로 왕녀하여 몽중의 친밀하미 잇스니 막시 줄연 복병이 이셔 맞치 티상의 아히 노듯하여 점점 불너오거늘 심히 고이 너져 흥혀 남이 알가 근심하더니 십삭의 맞쳐는 산점이 이셔 초막에 업되엇더니 희산하고 돌아보니 아히는 아니오 금방울 갖튼 거시 금광이 찬난하거늘¹⁹⁾

18) <금방울전 단>, 3장 뒤.

19) <금방울전 단>, 6장 앞~뒤.

결국 막씨의 꿈은 현실화되어 그간 소식을 알지 못했던 막씨의 남편 김삼당의 혼령이 나타나 막씨와 정을 통한 후 막씨는 현실에서 회임하여,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을 낳는다. 이 과정은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막씨에게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막씨에게 나타난 환상적 사건은 그 절개와 효를 포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천상에서 지향하는 이념을 강하게 표출한다.

1.3. 해룡의 경우

해룡에게 나타난 환상적 사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룡은 전란으로 부모와 유리되어 장삼에 의해 양육되나, 장삼이 일찍 병으로 죽자 그의 아내 변씨는 해룡을 박대하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금령이 나타나 해룡을 돕는데, 해룡에게 나타난 환상적 사건은 주로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송그러 업디엿더니 잠을 씨여 보니 방안이 밝기 낮 갖고 덩기 여름 갖터여 일신의 썸이 나가늘 놀나 니러나 본즉 오히려 동방이 미기하고 벽설이 쓸히 썸헛거늘 방아간의 나아가 보니 밤의 못다 씨엿던 거시 다 씨어 그르시 담겨 노헛거늘²⁰⁾

홀연 등 뒤호로서 금방울이 니다라 혼 번식 받드니 그 범이 소리를 지르고 다라들거늘 방울이 나는다시 연호여 바드니 두 범이 것구러지는지라 희룡이 괴특히 너겨 금녕에게 무슈히 스투하고 죽은 범을 닛글고 산의 내려오며 도라보니 금녕이 간디 업는지라²¹⁾

해룡은 금령의 도움으로 변씨의 계략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변씨가 집을 불태워 해룡을 죽이려하자 결국 집을 떠난다. 해룡이 갈 길을 찾지 못해 주저할 때 금령이 나타나 길을 안내하고, 금령을 따라 가던 중 구룡이 나타나 금령을 삼키고 사라진다. 이는 비현실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해룡과 금령은 현실에 환생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20) <금방울전 단>, 11장 앞~뒤.

21) <금방울전 단>, 12장 뒤.

현실에서도 반복되며, 이는 결국 해룡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생한 해룡은 비현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힘이 부족하여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금령을 구하라는 천명(天命)을 듣고, 구룡을 따라 그 소굴로 간다.

희룡이 하슈코저 하니 손의 촛철이 엷더니 홀연 일위 미인이 칠보홍군으로 몸을 가비야히 거러 벽상의 걸닌 보검을 갖다가 희룡을 쥘거늘 희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다라드러 요괴의 가슴을 무슈히 지르니 그 즘성이 그제야 죽어 느리지는지라²²⁾

앞서 언급했듯이 해룡은 천상에서도 현실에서 미약한 존재로 그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령의 초현실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금령이 구룡의 몸속에 있는 이상 이를 대신할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 이를 금선공주가 대신하여 해룡에게 보검을 전해주고 구룡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룡은 비현실계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 구룡에게 승리하지만, 이는 금령의 희생과 금선공주의 도움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룡에게 환상적 사건은 금령과 구룡을 통해 나타났는데, 전자가 사건 해결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룡에게 환상적 사건은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위기의 순간마다 금령은 해룡을 위해 희생하고, 나약한 해룡은 구룡과의 대결에서 또 다른 조력자 금선공주를 취하며, 이들의 희생으로 해룡은 현실에서 온전한 가장으로 가문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현실에서 일어난 환상적 사건을 장공부부, 막씨, 해룡을 통해 살펴봐왔다. 이들은 꿈을 통해 천명을 전달받고, 천상의 존재·귀신·금방울·요괴 등 환상적 존재들을 만나며,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을 통해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는 동시에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이러한 환상적 사건의 전개는 천상의 의도가 전제된 것으로, 그 추구하는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의도성이 짙게 나타나는데, 특히 장공부부와 해룡을 통해서만 가정과 가문을 형성하도록 만들고, 막씨를 통해서만 절개와 효를 강

22) <금방울전 단>, 17장 앞.

조하고 있었다.

한편, 장공부부·막씨·해룡은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옥황, 용왕, 용자, 용녀, 선관, 선녀, 귀신, 금방울, 구룡 등 다양한 환상적 존재를 만났고, 이들은 현실의 입장에서 모두 이물(異物)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반면 귀신·금방울·구룡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곧 이 작품에서 환상성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장공부부·막씨·해룡이 귀신·금방울·구룡에 대해 천상의 존재와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은 천상의 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2. 현실에서 재편되는 이물(異物)의 양상

2.1. 귀신(김삼낭의 혼령)

금령은 전생에 용녀(龍女)로 용신(龍神)이었으나, 천상의 의도로 호협방탕한 김삼낭과 막씨의 집에 환생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삼낭은 이미 죽은 혼령으로 현실에서 자손을 잉태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황은 금령을 막씨에게 환생시키기 위해 김삼낭의 혼령을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

막씨 일일은 일만 시름을 썩여 안졌더니 올연 일진음풍이 이러나며 초막 밧기 한 스름이 셋거늘 즈서히 본즉 이곳 삼낭이라 놀나 무르디 장뵈 나물 버리고 나간지 하마 슈십년이라 간 곳을 몰나 의려허더니 신령이 이르기를 난중의 죽다 흐미 몽스 미들 거시 아니로디 녀녀히 드럿는고로 녀연을 비설허엇더니 의심컨디 스라 서로 보미나 엇지 김흔 밤의 거취 분명치 아니호²³⁾

막씨는 초막에 서있는 김삼낭을 보고 놀라워하며, 꿈에 신령을 통해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고 밝히고, 그를 의심한다. 막씨는 꿈에서 본 신령의 말은 믿지만, 현실에 나타난 김삼낭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런데 김삼낭은 막씨에게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며 용서를 구한다.

23) <금방울전 단>, 4장 뒤.

과연 그더의 숙녀지덕을 모르고 탕즈의 마음을 것잡지 못하여 그릇 그더를 박덕헌 죄로 던양을 보다 과연 난군 중의 죽으미 후턴의 가도 또한 죄인이라. 비록 씨다르나 가히 맞지 못홀 비오. 귀신의 류의도 참여하여 셋기지 못하고 음풍의 단니더니 그더 나를 위하여 영향이 지극하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오 비록 유명이 현슈하나 그 감격함을 스투코저 호노라²⁴⁾

김삼낭은 막씨의 덕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막씨를 박대한 죄로 이승과 저승 어느 곳에도 들지 못하는 처지임을 밝힌다. 김삼낭은 막씨가 절개를 지키며 금령의 환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비록 혼령이나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고, 막씨는 이를 용서하며 지아비에 대한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금령을 환생시키기 위한 천상의 의도는 귀신과 막씨의 비현실적 관계를 현실에서 수용하게 만들고, 서로 정을 통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이물(異物)에 대한 태도도 천상의 의도에 견인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막씨의 절개를 부각시켜 천상이 지향하는 이념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2.2. 금방울

김삼낭의 혼령과 막씨 사이에 금령이 환생하는데, 금령은 천상에서 16년 후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금방울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금령은 천상의 의도에 의해 금방울의 형상으로 환생했으나, 그를 본 막씨와 장공의 태도는 김삼낭의 혼령을 만났을 때나 혹은 선관·동자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나타난다.

희산하고 도라보니 아히는 아니오 금방울 갖튼 거시 금광이 찬난하거늘, 막시 더경하여 고이 너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노 썬쳐도 썬여지지 아니하거늘, 이의 집어다가 먼니 브리고 들쳐 보니 금방울이 구울러 짜라 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김흔 물의 드리치고 도라오니 금방울이 물 우회 가 비야히 썬단니다가 막시의 가는 양을 보고 녀전히 구울너 짜라오는지라. 막시 헤아리되 나의 팔지 기구하여 이 갖튼 괴물을 만나 타일의 일노 인하여 반다시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자힐 썬의 아궁기 두리켰더니, 닷세 후의 헛쳐본즉 금

24) 〈금방울전 단〉, 4장 뒤.

방울이 썬여 나오되 상허기는 시로이 금빛치 더욱 썩썩하고 향니 진동허거늘²⁵⁾

막씨는 해산 후 금방울의 형상을 보고 괴물로 취급하며 죽이려 하는데, 앞서 김삼낭이 혼령임을 알면서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자화 시키며 불속에 넣어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김삼낭의 혼령이나 선관·동자가 현실에 일시적으로 머문 것과 달리 현실에 상주하려는 비현실적 존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이물(異物)을 현실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후에 그의 시아버지가 되는 장공에게 서도 나타난다.

지현과 금방울의 요괴로움을 고하니 일변 고이히 너기고 일변 신긋히 녀겨 니줄노 허여곰 철퇴로 힘빠 치라 하니 (...) 칼뿔 드러 한번 치니 두 조각의 나며 기름을 쓸이며 방울뿔 너흐니 과연 츠츠 적어 가거늘²⁶⁾

장공은 뇌양현의 지방관으로 목손이 금령의 요괴로움을 관(官)에 고(告)하자, 막씨와 금령을 잡아들이고,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을 현실에서 제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이 사건으로 금방울로서 금령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막씨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 나타난 이물(異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동일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그런데 해룡은 막씨·장공과는 달리 금방울의 형상을 한 금령에 대해 배척하지 않는다. 해룡은 변씨의 박대로 고달픈 생활을 하는데, 어느날 방이 따뜻하고 변씨가 시킨 집안일이 모두 해결된 것을 보고 놀라 살펴다가 금방울을 발견한다.

크게 의심허여 두로 살펴보니 침상의 북만흔 방울 갖튼 거시 노혔거늘 잡으려 하면 이리 다라나고 저리 구울너 잡히지 아니흐는지라 놀나 츠셔히 보니 금

25) <금방울전 단>, 5장 앞.

26) <금방울전 단>, 6장 뒤~7장 앞.

빗치 방중의 조요하고 오식 온점이 있고 움작일 적마다 향취 응비호는지라 희롱이 싱각호되 이거시 일정 무심치 아닌 일이로다 호고 심중의 암희호더니 귀한의 골몰호다가 몸이 칩지 아니미 도로 잠을 드러 늦도록 즈더니²⁷⁾

해룡은 막씨·장공과 달리 금령의 형상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토대로 이로운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금방울을 본다. 즉, 자신을 이롭게 한다면 이물(異物)이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이러한 태도는 막씨와 장공에게도 나타나는데, 금방울의 형상을 처음 본 막씨와 장공은 그를 타자화시키고 배척하나, 이후 그들에게 이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금령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씨와 장공은 현실에서 제거하려 했으나, 금령은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치위를 당호여도 방울이 구을너 품의 들면 조곰도 칩지 아니호여 엄동 설한의 한되서 남의 방하를 써어 주고 저녁의 초막으로 도라오니 방울이 구을너 막으로서 니다라 반기는듯 썩늘거늘 막시 치위를 견디지 못호여 막 속으로 드러가니 그 속이 놀납게 더우며 방울이 빗출 니여 밝기 낮갓거늘 막시 괴이 녀겨 남이 알가 저호호여 낮이면 막 속의 두고 밤이면 품 속의 품고 즈더니 방울이 점점 즈라미 산의 오르기를 평지갓치 다니며 즈디와 마른디 업시 구을너 다니되 품의 흠이 못지 아니호더라²⁸⁾

막씨는 금령을 잔인하게 제거하려 했으나, 금령은 개의치 않고 막씨를 반기며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적(異蹟)을 행한다. 이로 인해 막씨는 금령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며 품속에 품어 오히려 금령의 기이한 행동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이웃의 목손이 관아에 알리며 금령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 고초를 겪지만, 금령은 장공의 부인을 살리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27) <금방울전 단>, 11장 뒤.

28) <금방울전 단>, 5장 뒤.

맞그로서 방울이 구을너 부인 신체 압호로 드러가거늘 모다 보니 풀넙 갖튼 거슬 무리다가 노코 가는지라 급히 지버보니 나모넙 갖튼 거시로더 가늘게 빠스 되 보은최라 흐엿거늘 고이 디회 왓 이는 막시 보은훈 거시로다 흐고 그 풀를 부인 입의 너흐니 식경 후의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숨을 길게 쉬는지라²⁹⁾

장공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금령은 풀잎으로 부인을 구하고, 이로 인해 장공부부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앞서 적극적으로 금령을 제거하려했던 장공의 행동과 상반된다. 따라서 장공도 막씨와 같이 금령을 타자화 시키며 현실에서 제거하고자 했으나, 금령의 도움을 받으며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방울의 형상을 한 비현실적 존재 금령이 현실에 나타나자, 막씨와 장공에게 극단적으로 배척당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헌신하며 그 존재를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막씨가 금령의 친모이고, 이후 장공부부가 시부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령이 해룡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이후 지아비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절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 구룡(암태지)

<금방울전>에 나타나는 이물(異物) 가운데 구룡은 시종일관 응징의 대상이 되며, 결국 현실에서 제거 당한다. 구룡은 용녀(龍女)를 죽이고, 금령을 삼켜 해룡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상이며, 이들 외에도 금선공주를 비롯 여성들만 데려가는 요괴이다.

너희 슈십인 계집이 다 요괴로 변화하여 스름을 속이미 아니냐 모든 녀즈들이 일시의 꾸러 고왓 우리 등은 다 요기 아니오 스름이라 그릇 요괴에게 잡히어와 욱을 참고 스환허더니이다 앓가 칼 갖다가 쥬어니는 다른 스름이 아니라 금턴즈의 독녀 금선공쥬라³⁰⁾

앞서 김삼낭의 혼령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막씨의 덕을 칭송했고, 금령이 효와 절개를 실현하며 현실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구룡은 천상

29) <금방울전 단>, 8장 뒤.

30) <금방울전 단>, 17장 뒤.

의 이념을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들을 납치하며 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구룡은 <금방울전>에 등장하는 이물(異物) 가운데 유일하게 응징의 대상이 되고, 결국 현실의 논리에 의해 제거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현실에 나타난 귀신·금방울·요괴를 대상으로 이물(異物)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현실의 논리를 기준으로 절개와 효를 실현하는 대상과 훼손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환상적 존재인 이물(異物)도 현실의 논리로 재편하여 절개와 효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양상은 천상에서 지향하는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금방울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사회적 의미

<금방울전>은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환상적 사건이 벌어지며, 비현실적 존재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작품의 전반에 환상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양상은 천상계와 현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천상계가 지향하는 이념을 현실에서 구축하여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천상계에서 지향하는 이념은 해룡과 금령이 달리 나타나는데, 해룡을 통해서서는 가정과 가문을 형성하는 방향을 지향했다면, 금령을 통해서서는 절개와 효를 실현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이렇게 지향점이 달라진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금방울전>이 향유된 조선후기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실현되는 충(忠)과 효(孝)

해룡의 경우 그의 환생은 수직적 질서에 의해 결정되었다. 해룡은 금령과는 달리 죽어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진한 인연을 다하라는 옥황의 명(命)이 있었고, 이에 그의 아버지가 보은의 의도에서 장공부부의 집을 선택했으며, 해룡이 현실에 환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천명(天命)이 전달된다. 따라서 '옥황-용왕-용자'라는 수직적 질서 체계는, 해룡의 환생으로 인해 천상과 현실이 혈연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체계를 성립한다.

이러한 체계를 기저로 천상에서는 그 지향하는 바를 현실에 전달하는데, 해룡이 천상에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지 않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혹은 꿈을 통해 천명(天命)을 전달하여 현실에서 구현하도록 만든다. <금방울전>에서 해룡은 천명(天命)을 두 번 전달받는데, 첫째는 금령을 구룡이 삼켰을 때이고, 둘째는 해룡이 관찰사가 되어 뇌양현에 갔을 때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 해룡이 전달받은 천명(天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히룡이 낙담하여왈 분명코 금녕이 죽도다 호고 탄식하여 아모리 홀 줄 모로더니 홀연 일진광풍이 지누며 구룡 속의서 크게 불너 왈 그더 엇지 금녕을 구치하니호고 저리 방황호는다 호고 간 디 업거늘 히룡이 생각호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의 촌철이 업스니 엇지 디적호리오 그러나 금령 곳 아니면 니 엇지 스라스리오 호고 장속을 단단히 호고 썬여 드러가니 지척을 분변치 못홀너라³¹⁾

비현실계에서나 현실에서나 해룡은 구룡의 침범에 대적하기에는 미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구룡의 침범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금령을 구하라는 천명(天命)이 전달된다. 이에 해룡은 천명(天命)에 따라 구룡의 소굴로 금령을 구하러 가는데, 이 지점은 분명 해룡의 의지보다 천상의 의도가 앞서는 부분이다. 옥황은 해룡의 환생 이유로 미진한 연분을 거론했고, 해룡이 금령을 구하지 않자 금령을 구하라 명(命)한다. 이를 천정연분으로 보기에 개인의 의지보다 천상의 의도가 앞서고, 천명(天命)을 전달하면서까지 이들의 연분이 이어져야 한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천명(天命)이 전달되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시 즈연 번뇌하여 잠을 날우지 못호다가 잠간 조오더니 빅발 노옹이 막덜 드러 어스틀 가르쳐 왈 그디는 쇼년 영결노셔 명만스히호고 위진턴하 호되 부모를 생각지 아니호시뇨 이제 부모를 고티 두고 찾지 아니시니 이는 정성이 부족호미라 그덜을 위호여 붓그려 호노라 하니 어시 이 말될 듯고 다디 못고져 호더니 홀연 씨다라미 남가일몽이라³²⁾

31) <금방울전 단>, 16장 앞.

32) <금방울전 단>, 25장 뒤.

해룡이 전달받은 천명(天命)은 난중(亂中)에 헤어진 부모를 찾으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금령을 구하라는 명(命)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처를 구하고 부모를 찾는 것은 결국 가문의 형성으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천명(天命)에 의해 천상의 의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해룡의 환생은 천상의 수직적 체계를 따른 것으로, ‘옥황-용왕-용자’의 체계가 형성되었는데, 이제 해룡이 금령을 구하고, 장공부부를 만나며 현실의 체계는 ‘장공부부-해룡·금령부부’로 형성되어 천상과 지상의 수직적 체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수직적 체계에 해룡과 금선공주와의 결연이 더해지면서 다처제에 포섭되고, 이는 곧 가문의 번성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룡 개인의 각성으로 인한 의도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해룡이 금령을 포기하거나 부모와 재회를 망각하려는 순간 천명(天命)이 전달되고, 이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므로 천상의 의도가 작품의 전반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천상계가 지향하는 가치가 해룡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군담소설이나 가정소설이거나 이야기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가 선(善)의 방향에 놓이고 있다면 이 선(善)은 이데올로기로서 또한 천상적 가치로서 믿는 수용층에 의하여 실용적으로 채용된 것”³³⁾으로 본다는 입장에서 <금방울전>은 조선후기의 수용층과도 긴밀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방울전>은 해룡을 통해 천상과 지상의 수직적 질서, 즉 가부장제의 형성과 가문의 번영을 주요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이 향유된 조선후기 사회는 17세기 이후 종법질서가 확립되면서 친족제도가 부계 중심적 종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문중(門中) 중심적인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가부장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양반뿐만 아니라 상민들도 동족을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³⁴⁾ 또한, 가부장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형성되었는데, 남성은 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주체이자 가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권리를 갖게 되어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가장권을 지니게 되었다.³⁵⁾ 따라서 임병양란 이후 조선은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

33)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46면.

34) 김문준, 『17세기 예학의 양상과 사상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6, 167면.

35) 문소정,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 배경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33집, 한국사회사학회,

두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가 확립되었다.

조선후기의 가부장제의 확립은 <금방울전>에서도 수용되어 해룡을 통해 수직적 질서체계를 구축하며, 충(忠)과 효(孝)의 이념을 실현하게 하는데, 이는 곧 천상계에서 지향하는 것으로 당대 수용층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남성 영웅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는 충(忠)과 효(孝)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또 다른 영웅인 금령에게는 지향하는 가치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2. 여성에게 내면화되는 효(孝)와 열(烈)

금령의 환생은 천한 신분인 막씨의 효(孝)와 열(烈)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령은 옥황에 의해 막씨에게 환생하는데, 문제는 막씨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는 막씨의 집을 금령이 환생할 곳으로 정한다. 이는 금령에게 요구되는 천상계의 지향점이 효(孝)와 열(烈)이라는 것을 적실하게 보여준다. 막씨의 효(孝)와 열(烈)은 천상에서 금령을 통해 포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그에 대한 포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장공이 씨닷고 즉시 막씨를 노호니 그로부터 침식이 여전헌지라 장공이 막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의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워 집안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성을 평안케 하니라³⁶⁾

뇌양현의 지방관 장공은 막씨의 효행을 듣고 정문을 세워 주는 것은 물론 월음도 주며, 이후 황제도 막씨의 효를 알고 ‘대절지효부인(大節至孝夫人)’으로 봉한다. 이로써 막씨의 효(孝)와 열(烈)은 천상과 현실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며, 서사의 전반에서 각인된다. 막씨를 통해 환생하는 순간 금령은 효(孝)와 열(烈)을 실현해야 할 당위성이 전제되며, 이는 앞서 살펴본 해룡과 차별화되는 이념으로 열(烈)이 부여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금령에게 요구되는 열(烈)이념은 구룡과의 대결 상황에서도 절개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해룡과 함께 구룡에 맞선 금령은 구룡에

1992, 113~114면.
36) <금방울전 단>, 8장 앞.

먹히고, 그 동안 해룡은 금선공주가 전해준 보검으로 구룡을 제거한다. 그런데 해룡이 구룡을 제거한 순간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즈서히 보니 금터럭 도친 암돛치어늘 가슴을 헤치고 본즉 금녕이 구을너 나
오미³⁷⁾

요괴에게 성(性)을 부여해 구룡의 정체가 암돼지임을 밝힌다. 이는 금령이 구룡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금선공주와 다른 여성들이 구룡의 소굴에 감금당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정절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앞서 김삼낭의 혼령을 통해 막씨의 절개를 훼손시키지 않은 것처럼, 구룡의 정체를 암돼지로 밝히는 순간 금령과 금선공주를 비롯 구룡에게 잡혀있던 여성들의 순결이 담보된다. 따라서 현실의 논리에 따라 요괴마저도 성(性)을 부여해 여성의 순연한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금방울전>에 나타난 금령을 비롯한 여성 인물들에게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기저로 하는 열(烈)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가부장제는 상하층에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순수한 혈통으로 계승되기 위해 성(性)의 통제가 나타났고, 여성의 정절은 크게는 양반 계급이익의 안정과 작게는 가문의 존위보장과 연결되었다.³⁸⁾ 특히 양반신분은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요구하였고, 여성이 재가한 집안의 자손들은 과거 응시의 자격과 고급관료가 될 기회를 박탈해 정절은 부덕의 기본이었으며, 효(孝)와 더불어 충(忠)을 뒷받침하는 기본 윤리로서 왕권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³⁹⁾ 또한, 열녀(烈女)에 대한 정표는 조선 후기부터 빈번히 활용된 유인책으로서 특히 신왕(新王)의 등극시에는 거의 항상 행해졌으며, 해마다 연말에 관찰지역 내의 효자, 열녀를 뽑아 보고하여 상을 받게 하는 것은 수령과 관찰사의 의무였다.⁴⁰⁾ 그러므로 가부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이 필요했고, 이는 여성의 성(性)을 통제하는 열

37) <금방울전 단>, 17장 앞~뒤.

38) 이옥란,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93면.

39)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제7집, 한국여성연구소, 1996, 165면.

40) 이옥란, 앞의 논문, 46면.

(烈)이념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단순히 혈통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층을 다스리는 정치적 도구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금방울전>에서, 막씨, 금령, 금선 등 여성 인물을 통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층 신분의 막씨는 고공(雇工)으로 일하며 시모(媼母)를 봉양하고, 10년간 시모살이를 한 결과 지극한 효(孝)를 인정받아 여러 포상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신분 상승을 이룬다. 이는 효(孝)를 기반으로 열(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막씨에 대한 포상과 신분 상승이 서사의 주요한 장면으로 활용되며 하층 여성에게까지 효(孝)와 열(烈)이념을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막씨가 출산한 금령 역시 금방울의 형상으로 장공·막씨·해룡에게 효(孝)와 열(烈)을 실현하며 천상계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고, 금선공주도 해룡에게 보감을 전달하는 조력자로서 해룡이 입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이 작품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이념은 효(孝)와 열(烈)이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특히, 금령은 남성 영웅과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방울의 형상으로 구현한 모든 활동은 해룡을 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다. 해룡의 입신양명이 완성되는 순간 금방울로서의 형상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선관이 날오더 우리가 쥬던 보비를 도로 달나 흐거늘 선네 다섯가지를 드리
니 선관이 바다 각각 스미의 너코 공중으로 놀나가는지라 씨다르니 침살일몽이
라 급히 씨여나 방울을 촛즌즉 간 디 업거늘 즈시 삶펴보미 난디업슨 일위 미인
이 고티 안젧는지라(…)전후 스적을 무르니 능히 기록지 못흐는지라⁴¹⁾

금령은 인간으로 변신하며 초월적 능력은 제거되고, 본인의 이적(異蹟)은 기억하지 못한 다. 이로써 <금방울전>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던 환상성은 현실에서 모두 차단된다. 이 지점에서 금령은 신이한 능력은 상실했으나, 효(孝)와 열(烈)의 이념은 내면화되어 결국 금선공주와 함께 다처제로 포섭된다. 따라서 금령에게 나타난 환상성은 조선후기 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효(孝)와 열(烈)의 이념을 구현하며 가부장제 사회를 공고히

41) <금방울전 단>, 24장 앞.

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금방울전>에 나타난 환상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룡에게 나타난 환상성은 가부장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충(忠)과 효(孝)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의미를 지니며, 금령에게 나타난 환상성은 효(孝)와 열(烈)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두 인물을 통해 살펴본 환상성의 의미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체계를 세우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령의 서사가 확대되며, 특히 여성들에게 효(孝)와 열(烈)의 이념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유교적 지배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면서, 그 이면에는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방울전>의 금령을 여성영웅의 범주에 포함시켜 영웅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금령은 금방울의 형상으로 여성의 한계는 물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신이한 존재로 작품의 전면에 활약하지만, 해룡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 스스로 충(忠)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해룡과 금령을 동일한 영웅으로 칭한다면, 그 추구하는 이념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적어도 충(忠)의 이념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인데, 해룡에게는 충(忠)이 금령에게는 열(烈)이 강조되며 지향하는 이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을 구조적 측면에서 양성 영웅으로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방울전>에서 해룡과 금령에게 나타나는 환상성은 “육망의 대리충족을 제공하고 위반을 향한 충동을 중화시킴으로써 빈번하게 제도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⁴²⁾ 하는 입장에 부합하며, 해룡의 서사는 영웅소설의 성

42)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문학동네, 2001, 96면.

격을 보이고 금령의 서사는 대하소설과 깊은 관련성을 드러낸다.⁴³⁾ 이에 대한 논의는 장르적 속성과도 연관되므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43) 한길연은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환상성을 비교하여 “영웅소설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낭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되었다면, 대하소설에서는 현실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논의하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을 현실을 거의 그대로 되비추는 ‘현실투사’로서의 거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508면.

참고문헌

1. 자료

경관 28장본 <금방울전 단>(대영박물관 소장)

김기동·W.E. Skillend·D. Bouchez, 『경인 고소설 판각본 전집』 4.

2. 단행본

성기열, 「〈금령전〉 중의 ‘방울’ 소고」,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76.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7.

캐서린 흠·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1984.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문학동네, 2001.

3. 논문

김균홍, 「〈금방울전〉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나영, 「家的식의 관점에서 본 <금방울전>」, 『돈암어문학』 제19집, 돈암어문학회, 2006, 53~82면.

김문준, 「17세기 예학의 양상과 사상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6, 137~170면.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겨레어문학』 제8집, 겨레어문학회, 1987, 165~184면.

김선아, 「금방울전 연구」, 『어문논집』 제4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155~180면.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용기, 「여성영웅의 서사적 전통과 고소설에서의 수용과 변모」, 『우리문학연구』 제32집, 우리문학회, 2011, 33~74면.

문소정,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 배경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3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2, 113~114면.

박용식, 「〈금령전〉 연구」, 『중원인문논총』 제17집, 건국대 중원인문연구소, 1998, 1~15면.

사카타 사요, 「〈금방울전〉 연구」, 『국문학연구』 제17집, 국어국문학회, 2008, 181~202면.

신호림, 「〈금방울전〉에 나타난 금방울의 성격과 여성성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 연구』 제25집, 고전여성문학회, 2012, 365~401면.
- 유춘동, 『세채본 <금령전>의 텍스트 위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2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4, 99~121면.
- 윤경수, 『<금방울전>에 나타난 용신관념과 신화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9집, 반교어문학회, 1998, 267~291면.
- 이규훈, 『조선 후기 여성 주도 고난 극복 고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옥란,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유경, 『금방울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호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제7집, 한국여성연구소, 1996, 160~176면.
- 장경남, 『고소설의 이물교구담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23집, 우리문학회, 2008, 151~181면.
-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2집, 한국여성학회, 1986, 9~49면.
-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제7집, 연민학회, 1999, 153~188면.
- 최운식, 『<금방울전> 연구』, 『국제대학교논문집』 제12집,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84, 5~57면.
- _____, 『<금방울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1985, 410~446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469~513면.

Fantasy and Social Significance in <Geumbanguljeon>

Kim, Na-hye

The purpose of this writing was to seek its significance in the social aspect by examining the aspect of fantasy targeting <Geumbanguljeon>. <Geumbanguljeon> is condensed into fantastic elements such as the Supreme Being, the Sea God, Yongja, Yongnyeo, Seongwan(仙官), Seonnyeo(仙女), ghost, Magic Ball, and Guryong(sow). Especially, a heroin appears in front of narration with the shape of magic ball, which is an alien substance(異物). Thus, fantasy can be considered to be major characteristic of being noted in this work. Accordingly, the fantasy, which is shown in this work, was examined by being divided into wonderland and reality. As a result, the wonderland and the reality were implementing the ideology, which is indicated in wonderland, in reality while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wonderland delivered a mandate from Heaven(天命) by continuously intervening in reality so that gentle Haeryong can build patriarchy. Geumryeong was allowed to pass through the process that Hyo(孝) and Yeol(烈) are internalized even if making a sacrifice for the head of a family by giving the alien-substance(異物) shape or transcendental ability. This aspect was closely related to a situation of being settled ideology of fidelity in a woma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atriarchy in Joseon period.

Ultimately, a woman's unsurpassed ability, which was shown through magic ball in <Geumbanguljeon>, and all the fantasies, which appeared in the front of narration, were excluded from the logic of reality. Geumryeong, who was disguised as a woman, was realizing the Confucian ideology with being embraced by logic of reality called polygamy under patriarchy. Through this discussion, there will be significance in the aspect of having critically accepted reality of a woman, which had not been captured with being depressed by positive logic dubbed a woman's gender mobility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of heroic novel, and of having confirmed importance of fantasy in classical novel.

keywords: <Geumbanguljeon>, Fantasy, Hero, Woman, Patriarchy, Hyo(孝),
Yeol(烈)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